“입고 있는 옷이 달라서 그런가?”

옷이 날개라고 하면, 화면에 나오는 아이돌의 옷은 몇 쌍짜리 날개다.

블랙&화이트로 맞춘 가죽 상·하의, 징이 박힌 굽 높은 장화, 은으로 된 벨트.

아이돌에 못지않게 존재감을 뿜어내는 걸 보면 분명 비싼 명품이겠지.

“옷이 예쁘긴 하지만 춤이랑은 상관없잖아요?”

“상관있지 않을까? 춤은 몸을 움직이는 건데, 옷은 몸 위에 입는 거잖아.”

“너는 이 춤 연습할 때 무슨 옷 입고서 했어?”

“저요? 학교 체육복이요.”

“...우리 학교 체육복?”

무슨 염색 통에 풍덩 넣었다가 뺀 것 같은, 그 체육복?

“그걸 입었는데 아이돌 같은 느낌이 날 리가 없잖아…?”

“나, 남은 운동복이 없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입은 거라구요.”

“그럼 다음엔 운동복 말고 다른 옷을 입고 해봐. 좀 멋있는 걸로.”

“여기 아이돌 같은 옷이요?”

채아람이 영상 속에 나오는 아이돌의 옷을 확대했다.

“너랑 어울리는 옷이 제일 좋지 않을까? 아이돌 의상도 자기랑 어울리게 고른 거니까.”

“그렇겠네요. 근데 저랑 제일 어울리는 옷이 뭘까요?”

“그건 나도 모르지. 내가 본 건 네 교복 차림이 다인데.”

“으음…. 어떡하지…?”

“아, 이럼 되겠다! 선배!”

채아람이 한 걸음 가까이 오더니, 핸드폰 앨범을 열었다.

“선배가 여기서 뭐가 가장 어울렸는지 골라보세요!”

“내, 내가?”

“이런 건 남이 봐줘야 정확하다구요. 자, 빨리 골라보세요.”

채아람이 사진 하나를 터치해서 화면에 띄웠다.

“이건 친구들이랑 단풍 보러 갔을 때 찍은 거예요. 어른스러운 느낌으로 입은 건데 어때요?”

베이지 재킷에 청바지. 그리고 사이즈가 큰 베레모. 가을 패션 잡지에 나오는 모델 같다.

“그, 멋지네.”

“선배 반응이 미묘하니까 탈락. 요건요? 좀 색다르게 입어봤어요.”

동그란 안경에 지퍼형 후드. 공부 잘하는 모범생처럼 꾸민 걸까?

“어어...”

“이것도 탈락! 다음은...!!”

“채아람. 잠깐만 기다려봐.”

이어서 다음 사진을 보려는 채아람을 말렸다.

“내가 다른 사진을 봐도 너랑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어.”

“네? 왜요?”

“왜냐면 너한테 가장 어울리는 게 지금 옷 같거든.”

“지금 입고 있는 옷은 교복인데요?”

“응. 근데 익숙해서 그런지, 나한텐 그게 너다워 보여.”

흰 패딩에 교복 치마, 그리고 티셔츠.

처음 봤을 때도 채아람은 그 옷차림이었다. 지금도 그렇고, 학생회 할 때도 그랬다.

그래서 그런가. 사진에 채아람이 교복 말고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니 채아람답지 않게 느껴졌다.

“그러니까 사진은 딴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어.”

채아람이 내 말에 천천히 자기 옷을 돌아봤다.

천천히 요리조리 살펴보고는 자신 있게 가슴을 폈다.

“아뇨! 선배가 지금이 어울린다고 했으니까, 이 옷으로 할래요!”

“내가 말하긴 했지만 괜찮겠어?”

“네! 학생한테 제일 어울리는 옷이 교복이라고도 하잖아요?”

채아람은 그렇게 말하더니 제자리에서 빙글 한 바퀴 돌았다.

“움직이기 편하기도 하고, 우리 학교 교복은 귀여운 편이니까요!”

“고마워요, 선배! 다음에 연습할 때 한 번 선배 말대로 해볼게요.”

“그래. 고민 해결됐으니 다행이네.”

다시 교실로 돌아가려는데, 채아람이 핸드폰을 손에 들고 가까이 다가왔다.

그걸 높게 들고는.

찰칵.

“오, 잘 나왔다.”

갑자기 셀카를 찍었다.

“사진은 갑자기 왜 찍어?”

“입은 옷 맘에 들면 사진으로 남기거든요. 아직 교복은 찍은 적 없었는데...”

“선배 말 듣고 좀 맘에 들었으니까 찍어봤어요.”

채아람이 싱긋 웃으면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

“어때요? 이번 사진은 맘에 들죠?”

사진 찍는 줄도 모르고 찍힌 나와, 손가락으로 V까지 만들며 웃는 채아람.

“내가 이상하게 나와서 맘에 안 들어.”

“에이~ 무슨 소리예요. 완전 선배답게 나왔는데.”

채아람은 날 놀리면서 키득키득 웃었다.

그래도 뭐.

아까 본 사진 중에 가장 채아람다운 사진이긴 했다.